



시조에 나타난 한국인의 멋



시조에 관하여



시조는 본래 음악인데, 음악의 가사가 시로 된, 한국 고유의 시이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라는 정형의 형태를 지녔다. 또 일정한 율격을 지닌 정형시이다.

고려 때 처음 나와서 조선 시대에 들어서 식자층인 선비들의 애호를 받았다.

정형과 정형률이라는, 선비들의 정신을 담기에 좋은 형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시조의 형식

초장 : 000 0000 000 0000
3(4) 4(3) 3(4) 4(3)

중장 : 000 0000 000 0000
3(4) 4(3) 3(4) 4(3)

종장 : 000 00000 0000 000
3 5 4(3) 3(4)

초장 :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3 4 4 4 4

중장 : 소 치는 아이눔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3 4 4 4 4

종장 : 재 너머 사례 긴 받을 언제 갈려 하느냐


3 5 4 3



충성(忠誠)과 절의(節義)

시조





하여가(何如歌)
단심가(丹心歌)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 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

‘하여가’의 ‘하여(何如)’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뜻이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새우려는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찾아가 부른
시조이다.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

이방원의 노래에 정몽주가 고려에 충성하겠다는 뜻을 담아 부른 노래이다.

‘단심(丹心)’이란 ‘변하지 않는 붉은 마음’이라는 뜻이다.

이방원과 정몽주가 마주앉아서 서로 이렇듯 시조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뜻을 시조를 통해 은연 중에 상대방에게 전하였다.

정몽주가 뜻이 없고, 고려에 충성할
것을 알게 된 이방원이 어느 날
귀가하는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살해를
한다.

즉 자신의 정적을 죽인 것이다.

지금도 선죽교에는 그 핏자국이
선명하고, 붉은 대나무가 자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와 같은 면에서 '시조(時調)'는 단순한 음악이나 문학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하는 중요한 매체이기도 했었다.

즉 일상의 삶, 또는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충의가(忠義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얏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 하리라.

성삼문

성삼문은 세종 때 한글을 창제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던 집현전의 학사이다.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삼촌인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청령포 안내도

(The Guide Map Of Cheongnyeongpo)



- ① 단종어소 (The royal palace)
- ② 행랑채 (The bulk of a house)
- ③ 유지비각 (Yuji tablet house)
- ④ 관음송 (Gwaneum pine tree)
- ⑤ 금표비 (Geumpyo monument)
- ⑥ 망향탑 (Nostalgia pagoda)
- ⑦ 노산대 (Nosandae)
- ⑧ 화장실 (Toilet)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수양대군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이가 세조이다.

이에 뜻이 있는 신하들은 반발을 했다

일부 유신들은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도모하였고

이 계획은 성삼문 · 박팽년 · 이개 · 하위지 · 유성원 · 유응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명의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세조를 살해할 계획이었으나

연회 절차에 변동이 생겨 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불안을 느낀 김질이 밀고해 세조는 이들을 잡아들였고, 주모자 6명은 모두 처형을 당했다.

이 주모자 여섯 사람을 죽음으로써
총절을 지킨 신하라는 뜻의

사육신(死六臣)이라고 부른다.

이 중 한 사람인 성삼문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부른 시조가 바로 이
「총의가」이다.





절명시

성삼문

북소리가 둥둥둥 목숨을 재촉하고
서산에 걸린 해 기울어만 가는데
가는 길 황천길에는 주막집도 없다 하니
오늘밤은 그 어디에서 쉬어 갈꼬...

이 시는 한시로 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처형을 당하기 전에 지은 시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같지 않은
의연함이 담겨져 있다.

이 의연함은 바로 의로운 죽음을
한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군기시터
軍器寺址

조선시대 병기(兵器) 및
발등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官衙)
자리.











가노라 삼각산아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만은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병자호란 때 임금을 비롯한 대신들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다.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둘러싸고는 공격을
해왔다.

이에 적에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했던
척화파(斥和派)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전략적으로
청나라와 강화를 맺자는 주화파(主和派)로
나뉘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시조를 쓴 당시
예조판서인 김상헌은

청나라와 싸우자는
'척화파(斥和派)'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전쟁에서 조선은 마침내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고

김상헌은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청나라 수도인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 시조는 김상헌이 청나라로 붙잡혀
가는 길에 삼각산을 바라보고, 한강을
건너며 지은 시조이다.







Sogang

김상헌이 청나라로 잡혀갈 때 나이가 69세였다.

청나라에서 심문을 받을 때, 조선 사람이 조선에 충성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며, 그 일을 청나라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까지 감탄을 하고 존경하였다고 한다.

「단심가」, 「충의가」, 「가노라 삼각산아」
등과 같이

한국의 옛 시조에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자신의 절의를
노래한 작품들이 많다.

조선의 선비들은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절의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충성과 절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
조선 선비들의 정신이 담겨진
시조들에서

한국인이 지닌 정신의 강인함

나아가 한국인의 정신에 내재하고
있는 **멋**을 찾을 수가 있다.

시조에 나타난 선비들의 정신

지속성

불변

공음

신의

오우가(五友歌)

윤선도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







한국환경공사

Korea Environmental Corporation



물(水)

구름 빛이 깨끗다 하나 검기를 자주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많구나
종고도 그칠 이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지속성

돌(石, 바위)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데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돌, 바위의 변하지 않는 모습, 즉 불변

소나무(松)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슬아 너는 어찌 눈 서리 모르는가
구천에 뿌리 곧은 줄 그로 하여 아노라

소나무 잎이 사철 변하지 않는 모습, 즉 불변

대나무(竹)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저리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대나무의 곧음과 변하지 않는 모습



달(月)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보고 들은 말을 옮기지 않는 신중함과 신의

윗 시조에 나타난 정신은 '곧은 절개'와 '변하지 않는 마음', 또 '상대에 대한 신의' 등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정신,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음을 이 시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좋은 세상이 이룩될 것이라는 믿음이 한국의 옛 어른들에게 있었다.

시조

선비들의 소중한 정신인
'불변', '지속성', '곧음',
'신의' 등을 담아 부르던
문학 양식이었다.



한국인의 풍류



짚방석 내지 마라

한호

짚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
아희야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한호(석봉)에 관한 일화



한호는 조선의 명필이다.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떡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한호에게는 글씨를 쓰게 했다.

불을 다시 켜고 보니 어머니 떡은 가지런히 잘 쓸어져 있는데 한호의 글씨는 삐뚤삐뚤 엉망이었다.

이에 어머니가 너의 글씨도 이렇게
될 때까지 다시 더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깨달은 바가 있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한호(석봉)는 마침내 천하의 명필이
되었다.

袁松堂識

秋日宴安錄王

潤序

南星啟瑞
新府星分翠葉

縣地接海
襟三江而帶五
湖控靈以萬
引疏城物阜



방석을 일부러 내어서 그 위에 앉지 않고,
낙엽 위에 앉으며

일부러 등불을 밝힐 것이 아니라, 달빛으로
불빛을 삼아서

박주산채(薄酒山採), 곧 좋지 않은 술과
산나물 같은 좋지 않은 안주라도 내놓아라

낙엽 위에 앉아 달빛 받으며 술을 마시는 그
풍류를 즐기자는 마음이 담겨진 시조이다.

한국의 옛사람들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을 더 좋아해서

자연과 함께 즐기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연을 즐기며,
사람의 마음 자체가 바로 자연이 되는 그
경지를 또한 가장 높은 경지로 삼았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옛사람들의 멋, 곧
풍류를 만날 수 있다.

「짚방석 내지 마라」

이 시조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 마음도 마침내 자연이 되는

그런 마음의 경지가 지닌 '멋'
을 노래한 작품이다.



사설시조에 나타난 풍자와 해학의 멋

사설시조의 '사설'이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이다.

시조를 이야기하듯이 길게 쓴다는 뜻에서 '사설시조'라고 이름하였다.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 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자유로운 마음을 담은 시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가 바로 사설시조이다. 즉 정형의 틀을 부스고 자유롭게 길게 이야기하듯이 시조를 쓰게 되었다.

정형의 틀을 지닌 시조를 평시조라고 하고

정형의 틀을 부스고 길게 쓴 시조를 엇시조라고 한다.

사설시조는 바로 엇시조이다.

두꺼비 파리 물고

지은이 모름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자.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鶻)이 떠
잇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썩 뛰어
내리다가 두엄 아래 넘어져 나뿔굴었다.

다행이도 날랜 나이기에 망정이지 멍이 들
뻥하였구나!

조선 시대에 타락한 사회상과 허세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담은 「두꺼비 파리를 물고」는 조선 사회를 풍자한 시조이다.

파리는 피지배층인 서민을 비유한 것이다.

두꺼비는 타락한 양반 혹은 탐관오리를 비유한 것이고

백송골은 '매'인데, 이는 외세의 침략, 혹은 상부의 중앙 관리를 의미한다.

두꺼비로 비유된 양반이 파리로 비유된
힘없는 백성들로부터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데

마침 중앙에서 감독하는 높은 관리가
나타났다.

이에 놀란 타락한 관리가 무서워 급히
숨다가 넘어졌다. 이러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날새기 때문에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풍자한
사설시조

이 사설시조를 읽게 되면, 타락한
관리들이 힘없는 백성에게는 무섭게
하면서도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아주 비열하게 행동을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풍자를 통해 비록 힘이 없어
타락한 관리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기는 아픔을 당하는
백성들이지만

이 타락한 관리들을 풍자와 해학으로
비판하므로 자신들의 아픔을 달래는

백성들의 기지와 슬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시조에 나타난

한국인의 멋



시조는 500년 이상을 한국인들이
즐거 부르던 문학이며 음악이었다.


이렇듯 오래 된 예술을 통해
한국인들은 충성과 절의, 그리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소중한 정신인
불변, 곧음, 신의 등을 담아 불렀다.

또한 한국인의 풍류를 담았고,
세상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담았다.

시조(時調)

한국인이 지닌
정신의 멋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한국 고유의

문학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